

동학사상의 교육내용과 생태교육

진 창 영

위덕대학교

〈요 약〉

생태교육이란 전 지구의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가 제 각각의 존재 역할을 하면서 상생적 작용 속에서 존재의미를 이루어 간다는 철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자연 현상적 관점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세상의 사물 모두를 동등한 존재가치로 인정한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동학의 교육내용도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의 교육내용 중 교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불연기연(不然其然)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사상이 이런 생태교육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상의 '드러난 질서'인 '기연'과,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숨겨진 질서'인 '불연'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교차되고 있다는 것이 불연기연의 원리다. 이는 생태교육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세상 모든 사물이 작위 없이(無爲) 스스로 변화되고 이루어진다(而化)는 무위이화의 교리 역시 이런 관점의 전제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학의 교육내용 중 실천적인 것으로 여성과 아동존중사상 역시 생태적인 요소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과 아동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던 기존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여성과 아동을 환경과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존중의 교육내용도 생태적 교육관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핵심 주제어 : 동학사상, 교육내용, 불연기연, 무위이화, 여성과 아동존중

I.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르네상스 이후 서구 근대교육과 현대교육의 모든 사조들은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이라는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었다. 동양 역시 유가에서 창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큰 흐름은 역시 인간중심, 남성중심, 성인중심의 교육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한 근대교육의 이러한 흐름은 교육을 공학적 패러다임에 놓고 일정한 장에 넣은 학교중심, 교실중심의 교육으로 치달으면서 보편적 현상으로 굳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근대 이후 오늘의 교육은 전 인류의 당면과제인 환경파괴문제와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아직 적절한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생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이 점은 동서양의 근·현대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인간중심, 문명중심, 남성중심, 성인중심의 권력적 지배 이데올로기 중심의 교육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그 교육적 대안 마련과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교육에서도 1980년대 이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는 있으나 이는 생태라는 개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일찍이 동양의 불교사상이나 노장사상은 이러한 생태교육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전통교육 역시 이를 교육에 적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가의 전유물로 인식된 교육론에서는 노장사상을 배척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오늘의 시점에서 요청되는 생태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우리의 근대 사상에서도 발견되는데 1860년 창도된 동학이 그것이다. 최제우의 동학 창도는 19세기 중반 동양 문화권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던 중국의 몰락 위기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흑세무민에 의한 민생의 파탄과 서구열강의 위협 등의 극심한 혼란과 위기의 시점에 대두된 ‘패러다임의 교체’¹⁾ 선언이라 할 만하다. 이것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그러하였다. 그것은 동학이 우리의 전통교육의 기본 틀이었던 인간중심, 남성중심, 성인중심으로부터 생태중심, 여성존중, 아동존중을 포괄하는 만인평등, 만물평등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근대의 봉건적 질서 전반의 해체를 주장한 탈근대의 신사상으로서 동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후천개벽의 선언이 그것이다. 동학사상이 갖고 있는 기존 교육관의 해체적 재편성의 주장도 여기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동학의 생태적 교육관’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학의 생태적 교육관은 기존의 근대적 반생태교육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요청되는 탈근대의 교육적 대안²⁾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의 주된 명제가 ‘진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그 발전은 패러다임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p.120 참조. 이는 동학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사상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동학이라는 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생태교육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에 있어 탈근대애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서 요구되는 것의 요체는 인간주체와 이성중심, 남성중심의 세계관에서 생태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동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이 제시하고 있는 생태교육의 요소는 일정부분 여기에 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 글은 쓰여 진다.

이렇듯 우리 고유의 자생적 근대사상인 동학사상에서 그 생태교육적 요소를 찾아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흔히 불교나 노장사상이 생태교육의 이론적 바탕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동학은 이러한 동양사상들을 독특하게 재해석하여 세워놓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으로 여기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생태이론의 분류와 생태교육의 개념

1. 생태이론과 그 분류

생태운동이 최초로 발생하게 되는 저변에는 기독교신학자 린 화이트(Lynn White jnr)의 서구 기독교문화중심주의에 대한 비판²⁾이 깔려 있었다. 즉 서구의 기독교중심문화의 저변을 받치고 있는 인간과 문명중심의 이기적 사고가 자연에 대한 오만을 불러왔고 이러한 인간의 오만은 미래에 인간의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것이었다.

이후 1964년 ‘침묵하는 봄’이란 시를 통하여 많은 미국인들에게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던 카슨(R. Carson)과, 역시 시로써 환경파괴를 고발하여 환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낸 시나이더(Gary Snyder)에서 비롯된 환경문제는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로 출간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와 슈마허(E. F. Schumacher)의 에세이집 『작은 것이 아름답다』 등을 계기로 ‘운동’으로 촉발되기 시작한다. 이 운동은 70년대까지는 환경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초기에는 주로 공해, 오염, 보존 등 인간중심의 관심사였다가 점차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하여서는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는 해결될 성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전 지구적 생명권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게 되고 이는 생태주의라는 일반화된 용어로 자리하게 된다. 이후 생태주의는 다양한 양상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에 생태주의 운동의 이론적 근거로서 생태이론들이 자

2) 탈근대교육이란 근대교육에서 ‘교육과정’이라는 텍스트의 해체를 말하기도 한다. 이 때 텍스트는 인간주체라는 근대적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명석, 『선문답의 탈근대교육』, 아름다운세상, 1999, p.16참조)

3)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John Barr(ed), *The Environmental Handbook*, pp. 3~16;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38쪽, 참조

리하게 된다.

이 이론들 중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심층생태론이다. 이는 노르웨이 철학자 네스(Arne Naess)가 1972년 행한 강연 제목 <심층생태론(Deep ecology)>에서 온 말로서, 오염과 자원의 고갈을 해결하고 인간의 건강과 풍요를 보존하자는 초기 환경운동의 형태였던 '피상생태론(Shallow ecology)'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생태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자주 쓰이게 된 이 개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의 그물망 또는 내재적 관계의 장에 속한 하나의 구조적 매듭관계로 이해한다. 여기서는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인간문명 중심의 세계'와 '자연생태'의 이원적 세계관으로 구분하는 인식과 이로 인한 인간문명 중심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모든 유형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따라서 그 해소의 대안으로 이러한 이원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제안한다.⁴⁾

다음으로 '자연생태론'이 있다. 이는 '생태주의적 과학관' 또는 '생태유기체주의'로 불리어지기도 하는 것으로⁵⁾ 당초 생물학(Biology)에서 분화된 분야인 생태학이라는 교과용 교재에 정의되고 있는 순수 자연과학적 개념의 용어이다. 생태란 '지구의 생물이 생물과 비생물의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상호작용으로 항상 조화를 이루어 살고 있는 생명현상'⁶⁾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생태론은 이러한 생태학의 기본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제임스러브록(Lovelock)의 '가이아적 세계관'이나 장희익의 '온생명론'이 모두 이 맥락에 놓인다. '가이아(Gaia)가설'이란 지구상의 모든 생물권, 대기권, 대양 그리고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실체 즉 '초거대 유기체로서의 지구'라는 이론이고, '온생명론'이란, 지구상의 모든 '개체생명' 즉 '날생명(Individual life)'은 다른 '보생명(補生命, co-life)'과 서로 의존하면서 존립하는데 이 때 날생명과 보생명은 지구상의 온생명이라는 총체적 생명체로서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둘 다 자연생태론의 예라 할 수 있다. 심층생태론은 자연생태주의의 한 예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북친(Murray Bookchin)의 이론으로 대표되며 과학과 기술문명이 만들어 낸 산업사회의 권력관계와 인간의 사회적 권력관계는 그냥 둔 채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문제만을 논의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생태공동체와 정치·경제권력 구도의 혁파를 제안한다. 이는 자연생태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발단되었으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의 아나키즘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즉 제도화된 인간의 사회적 권력체제와 그 지배로부터 자유를 찾고자 하는 아나키즘정신은 곧 인간중심의 문명이라는 권력의 힘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생태론을 낳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4)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앞의 책, 105, 159쪽의 분류표 참조, 교수신문, 81호(1996.01.29), 「생태주의 기획」의 분류표 참조

5) 구승희, 위의 책, p.175 참조

6) 장남기 외 5인, 『생태학』, 아카데미서적, 1997, p.13

이 외에 생태주의라는 거대 담론에는 환경주의⁷⁾, 생태마르크스주의⁸⁾ 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여러 생태이론들⁹⁾이 동학사상에서는 그 가르침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시천주(侍天主), 양천주(養天主) 및 이천식천(以天食天) 등의 사상은 심층생태론으로, 여성과 아동존중은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의 모습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동학사상의 핵심인 시천주, 양천주 및 이천식천 등을 심층생태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학사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구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의 생태 즉 인간의 건강과 풍요를 전제한 ‘피상적 생태론’을 비판하는 입장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학의 인간존중사상은 인간을 우주만물의 중심으로 보는 인간 중심의 이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학의 시천주사상과 이를 이은 양천주 및 이천식천 그리고 심지어 천도교의 인내천사상 까지도 모두 인간과 만물의 상생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 인간 중심적 관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동학에서는 ‘천’을 ‘한울’이라고 하여 단순한 ‘하늘’의 개념이 아닌 ‘생성의 원천’, ‘창조의 근원’으로 보고 있으며 곧 ‘세상 만물 모두가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동학이 표방하고 있는 사상은 시천주, 사인여천 등의 인간존중이지만 창도 당시 우리의 사회 상황에서 볼 때 이 정신은 곧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소외되고 핍박받으며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소외된 대다수의 민중들의 인권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표방될 수밖에 없었다. 즉 동학사상은 그 본래적 태생 환경이 이렇듯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최악이었던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에 그 현실적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민중정신을 바탕으로 한 구시대의 봉건적 정치·경제적 권력구도 혁파라는 사회적 요소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학사상이 갖고 있는 생태적 요소는 사회생태론과도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학에서 가르치고자하는 교육관은 모든 생명의 상생적 존중은 물론 인간의 사회적 지배와 권력관계를 평등하게 추구하자는 양자의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7) 환경위기의 원인을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소비구조 및 환경파괴적 산업구조에 두고 있으며 대안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감소에서 찾는다.

8) 환경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체제 때문이라고 보며 해결 대안으로 사회관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이러한 여러 생태이론들이 저마다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환경과 생태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반면, 한편 그러나 아무리 환경천국이 온다하더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고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반성적 신중론자들도 있다. 생태주의 윤리문화학자 맥클로스키와 그 논리를 지지하고 있는 구승희가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이런 환경·생태론자들의 위기진단과 예측이 과학적 토대가 부족한 추측이거나 현실불안의 투사일 가능성을 들면서 혹시라도 퇴행적 원시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구승희, 앞의 책 p.150 참조) 아울러 이런 위기 진단의 저변에 아마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살던 시대를 최악의 위기 시대로 인식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예단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생태교육의 관점은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 이 두 이론의 관점을 함께 갖는다.

2. 생태교육의 개념

이상 큰 틀에서 본 생태이론들의 세 입장은 모두,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다른 유·무기체와 사물 존재들과 함께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상생적 활동에 참여하는 한 개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생태교육의 개념 역시 이 관점을 교육에 적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태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려면 먼저 교육의 요소와 '교육현상의 구조'¹⁰⁾라는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3요소를 교육자, 학습자, 교육내용으로 말하지만 이들 세 요소와의 관련으로 생태교육의 개념설정에는 불충분하므로 다음의 세 가지 교육현상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와의 관련을 통하여 생태교육의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생태와 교육의 관계적 적용을 위하여 '생태'라는 전제를 염두에 두면서 교육현상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를 살펴 봐야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 외부환경과의 관계'이다. 이는 교육목적이나 이념과 연관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동학의 교육이념이 인간 뿐만아니라 인간 이외의 만물과의 상생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또 하나는 '관계의 내용 즉 교육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방법 즉 관계의 방법'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의 관계인데, 즉 교육환경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관계는 교육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주체와 객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생태라고 하는 교육의 목적과 이념하에서는 교육 환경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은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과 외부 환경은 동등한 자격과 관계 속에서 상생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교육이란 앞 항에서 말한 전 지구의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의 모두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이를 통한 작용으로 생명현상을 이루어 간다는 철학적 가치를 근본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자연 현상적 관점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생태교육은 이러한 전 지구와 우주의 생태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여 생태의 내용을 가르쳐서 깨우치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 역시 그 자체가 생태적 관점이 전제되어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즉 이러한 목적과 이념 구현을 위한 방법적 요소들과 그러한 교육의 내용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0) 김인회, 『교육사·교육철학강의』, 문음사, 2002, 69~73쪽, 참조.

3. 동학사상의 교육적 접점

이렇게 볼 때 먼저 동학이라는 하나의 종교현상을 과연 교육학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여기서 도출된 교육의 몇 측면들과 동학사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학 교육의 한 측면인 교육내용이 보다 명료하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교육이념이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종교의 각종 의례나 수단은 교육방법으로, 종교의 교리는 교육철학이나 교육내용으로 각각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학사상의 여러 요소들인 시천주와 양천주, 불연기연(不然其然)과 무위이화(無爲而化) 그리고 여성과 아동존중, 수심정기(守心正氣)·성(誠)·경(敬)·신(信)과 대인접물(待人接物) 등이 각각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과 어떤 면에서 접점을 이루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논증의 순서이다.

그렇다면, 먼저 '교육이념과 목적'이란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동학의 경우 동학이 가르치고자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최종의 지향점이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은 교육이념이나 목적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교육내용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가치 구현을 위하여 그것을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교육방법'이라는 용어가 지적하는 교육활동의 여러 측면¹²⁾들은 반드시 교육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방법이란 말을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본다면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의 세 측면을 이렇게 볼 때 동학사상의 핵심요체로 맨 먼저 등장하는 시천주와 양천주 그리고 이천식천 등은 동학의 교육이념이나 목적의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불연기연과 무위이화, 여성과 아동존중 등은 교육내용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성·경·신(誠·敬·信) 그리고 대인접물(待人接物)은 동학의 교육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시천주, 양천주, 이천식천 등이 동학의 교육이념이나 목적과 관련지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자.

동학사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핵심용어인 시천주는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내유신령(內有神靈)하고 외유기화(外有氣化)하여 각자 깨달아, 변하지 않고 천주 곧 한울님을 모신 상태가 되는 것'¹³⁾으로 이는 동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이자 궁극적 지향점이다. 여기서

11) 이홍우, 『교육과정탐구』, 박영사, 2004, 205쪽.

12) 이홍우의 위의 책 255~256쪽에 의하면 교육방법이란 교육활동의 모든 측면 즉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교사의 행동,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자료와 도구 등의 각종 정보매체 그리고 교수의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의 집단을 조직하는 방법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伊者也, 『東經大全』, 「論學文」

‘내유신령 외유기화’란 안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밖으로 끊임없는 유기화와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생성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일단 기본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종교적 체험의 문자적 기록이므로 이를 현실적 적용 개념으로 본다면 광범위한 영역으로까지 확장 가능하다. 그렇게 볼 때 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모든 만물 존재들 간의 정신적 물질적 작용의 ‘한울님¹⁴⁾을 모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동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동학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동학을 통하여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념과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동학의 교육이념과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심정기와 성·경·신 그리고 대인접물이 동학의 교육방법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시천주, 양천주, 불연기연 등이 동학이 종교로서의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으로서의 가르침이라면 해월신사법설의 수심정기·성경신이나 대인접물법 등은 가르침의 실현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한울)의 마음을 닦고 지키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는 수도의 방법이요, ‘순일(純一)한 마음’과 ‘끊임없이 쉬임없는 마음 닦음’ 곧 ‘무식(無息)’의 ‘성’과, 맑고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여 공경하는 마음인 ‘경’과 그리고 이를 굴러가는 ‘신’의 수도법은 바로 동학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 곧 교육방법인 것이다. 즉 이들 덕목은 동학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적인 개인의 무극 대도와 세상의 후천개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이념’과 ‘목적’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연기연, 무위이화 등이 동학의 ‘교육내용’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관한 점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교육내용이란 교육이념과 목적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할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불연기연은 동학의 시천주·양천주·이천식천의 이념이 지향하는 가치 구현을 위한 바탕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불연기연, 무위이화가 이 시천주와 양천주라는 가치 이념의 구현을 위한 내용인가가 중요하다. 시천주를 풀이한 내유신령 외유기화 즉 ‘안으로 항상 역동적 신령함을 가지며 밖으로 항상 생성적 유기화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태’를 구현할 내용이 ‘불연기연’, ‘무위이화’인가 하는 점이다. 불연기연이란 한마디로 불연의 세계와 기연의 세계가 구분되어 달리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렇다고 인정하고 이해될 수 없는 현상 또는 이성적인 인식이나 상식으로

14) 동학에서는 그 ‘최고 신앙의 대상’이자 ‘최고 가치’를 동경대전에서는 ‘천’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반에 세속화과정을 거치면서 해월 시대 이후 ‘한울’이라는 순우리말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여기서 ‘한’은 ‘매우 넓고 큰’의 뜻이요 ‘울’은 ‘울타리’ 즉 ‘세계’라는 뜻으로 ‘한울’은 곧 ‘끝없이 넓고 큰 울타리’란 뜻이며 곧 ‘무극(無極)’이란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학에서는 “천=한울, 천주=한울님”으로 보아 무방하다.

본 연구에서는 ‘천’과 ‘한울’과 ‘천(한울)’ 그리고 ‘천주’와 ‘한울님’과 ‘천주(한울님)’의 용어는 모두 각각 같은 의미이므로 논지 전개과정에서 전후문맥의 의미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임의로 쓰고자 한다.

해명될 수 없는 현상들인 ‘불연’의 세계와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상식으로 인정되는 외부 현상들인 ‘기연’의 세계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이원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개념이다. 불연기연이란 우리의 기존 관념에 자리하고 있는 이원적 세계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외관적 느낌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우주질서를 바라보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체계를 다시 세우고자 한 이른바 새 패러다임을 내세운 말이기도 하다. 숨겨진 질서인 ‘불연’과 드러난 질서인 ‘기연’의 세계가 구분된 것처럼 보이고 인식되는 것은 인간의 미혹이라는 것이다.

이 불연기연은 『동경대전(東經大典)』의 「포덕문」이나 『해월신사법설』 속의 한 용어인 시천주나 양천주와는 달리 『동경대전』의 한 장(Chapter)으로 독립시켜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와 그 운행원리와 존재의 실상을 밝혀 적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몽매한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서 알게 하기 위한, 또는 앞의 시천주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무위이화’는 불연기연의 원리에 의한 결과 일어나는 세상의 운행원리를 함축하는 용어로 불연기연의 연장에 놓인다. 즉 시천주, 양천주, 이천식천이라는 동학의 교육이념을 가르칠만한 내용으로서의 동학교리의 근본원리인 불연기연의 결과론에 해당하는 것이 무위이화이다. 따라서 이는 동학의 교육내용을 상징할만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두고 볼 때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의 「포덕문」, 「권학문」, 「수덕문」 등은 수운의 득도를 전하여 동학의 창도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동학사상의 응집체로서 그 교육적 접점을 찾는다면 교육목적과 이념으로 볼 수 있고, 「불연기연」, 「축문」, 「주문」, 「탄도유심급」 등은 이의 구현을 위하여 담고 있는 교육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운 이후 『해월신사법설』의 ‘수도법’과 ‘대인접물법’ 등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동학사상과 교육의 세 접점 중 이 글에서는 동학과 관련하여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의 부분은 다음 과제로 미루고 우선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앞서 말한 생태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동학의 교육내용과 생태교육

앞서 말하였듯이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이나 이념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교육내용이란 교육목표에 명시된 가치 즉 ‘왜 가르치는가’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⁵⁾ 동학교육의 경우 동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이념과 목표의 구

15) 이홍우, 앞의 책, 205쪽. 이렇듯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와 관련되어 파악되어야 하고 교육내용은 또한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현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무엇’이 그 교육내용이 될 것이다. 이 ‘무엇’을 교육목표와 관련지어 본다면 동학의 가치이념 구현을 위하여 ‘가르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수운의 을묘천서나 동학의 창도일(1860년 4월 5일)을 모르면 동학을 안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동학의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학의 교육내용은 시천주와 양천주 및 이천식천과 같은 교육이념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곧 동학의 교육내용이 될 것이다. 그것은 즉 ‘동학의 교육목표와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가르칠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 장에서 언급한 동학의 교육목적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불연기연의 세계관’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무위이화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은 동학의 교육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불연기연(不然其然)과 무위이화(無爲而化)에서: 교리적 교육내용

1) 불연기연

불연기연이 동학을 통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자하는 교육내용으로 함당한지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불연기연의 내용 해석을 통하여 이것이 앞서 말한 동학의 핵심 이념들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인가를 논증하고자 한다.

『동경대전』은 동학의 모든 경편을 모아 크게 한 책을 이룬 경전인데 불연기연은 이 경편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불연기연은 그 분량 면에서 뿐만 아니라 동학사상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요체이자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시천주와 양천주의 이념을 구현하여 도를 이루는 원리 그 자체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의 도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시천주, 양천주의 세계관을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원리를 아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천주, 양천주나 이천식천이 동학의 이념으로서 동학이라는 종교적 도를 구하는 주체자의 마음의 문제라면, 불연기연은 이 도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객체들 간의 존재원리와 ‘관계’를 밝히고 있는 핵심원리적 교리이다.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등이 일종의 종교체험적 선언적 교리라면 불연기연은 이들 교리들에 공통적으로 전제된 관점과 논리적 원리 즉 앞서 말한 세계관 그 자체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불연기연의 기저를 이루는 논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우주의 모든 만물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현상의 근원이 되는 본질의 문제를 ‘기연’과 ‘불연’으로 본 것이다. 가령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인 ‘기연’과 비가시적이거나 비경험적 세계인 ‘불연’의 관계는 우리의 인식에 불과할 뿐 그 존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서 ‘기연’이란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식에 의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단자(易斷者)”¹⁶⁾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불연’은 그러하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16) 쉽게 판단되는 것(필자주), 『東經大全』, 「不然其然」.

“난필자(難必者)”¹⁷⁾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된다.¹⁸⁾

이와 같이 이단자의 세계인 기연과 난필자의 세계인 불연의 세계를 수운은 다음과 같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내가 나 됨을 생각하면 부모가 계시다¹⁹⁾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는 바로 아버지가 낳았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았고, 하는 식의 형식논리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면서 ‘기연’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무한대로 소급되다 보면 그 맨 처음의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하는 문제와 만나게 되는데²⁰⁾ 이것은 바로 불연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기연의 세계 속에 이미 불연의 세계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연의 세계 속에 가득한 불연의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주 속에 상존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기연 만을 보고 의식하며 살지만 단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불연의 현상과 어차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 의식하고 또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듯이 기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만물에 드러나는 현상일 뿐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불연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까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만물의 일부는 기연이 되는 것이고 그 만물의 뿌리는 불연에 닿아 있으므로 외면상 기연과 불연이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서로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유지 발전을 김지하의 말과 같이, 보이는 현상의 ‘드러난 질서’와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숨겨진 질서’간의 교차 증폭 현상²¹⁾으로 보는 것이 이 불연기연사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²⁾ 따라서 이 이론이야말로 동학사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의 원리적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양천주나 시천주의 이론도 모두 이 원리 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곧 양천주, 시천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사상이자 그 원리에 적용되는 대상들 곧 인간이나 사물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드러난 질서와 숨겨진 질서의 상호 교차 증폭에서 생성이 일어난다는 관점은 바로 우주적 지구적 모든 존재를 상호 연대하는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는 생태주의의 관점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생태화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의 ‘가이아(Gaia)이론’²³⁾이나 장회익의 ‘온생명론’의 기본적인 관점을 그

17)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필자주), 『東經大全』, 「不然其然」.

18) 是故 難必者 不然 易斷者 其然(『東經大全』, 「不然其然」.)

19) 我思我 則父母在茲(『東經大全』, 「不然其然」.)

20) 君無傳位之君 而法綱何受 師無受訓之師 而禮義安效 不知也 不知也(『東經大全』, 「不然其然」.)

21) 김지하, 앞의 책, 62쪽, 참조.

22) 이 때 기연의 세계는 불연 세계의 드러남이요 또한 불연 세계를 근본적인 기반으로 하여 세계를 인식할 때에는 불연 세계가 이미 기연이 된다는 우주의 생명이 생성되는 일원적 순환의 논리가 여기서 성립된다. 이를 수운은 “混元之一氣” 또는 “一元之氣”라고 하였다. 『東經大全』, 「不然其然」, 참조.

대로 보는 듯하다.

다시 말하여 시천주, 양천주를 제대로 알고 실행하려면 그 원리가 경험하고 드러난 질서만이 전부가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 숨겨진 질서가 함께 이루어져 운행되어간다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이른바 교육내용인 것이다.

여기서 교육내용으로서의 생태주의적 요소가 기존 교육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대안적 교육의 요소로 제시되기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기존 교육과 관련된 우리의 인식체계 역시 경험하고 드러난 질서에 의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 이성중심과 합리주의의 관점을 뛰어넘을 수도 또 이를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합리적 이성의 판단으로는 모순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과 합리의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 성경의 다음 내용을 보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²⁴⁾

이 예문은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성의 문제와 얼마나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교육의 맹점은 모든 것을 하나의 틀에 고착시켜 놓고 그것으로 '이다'와 '아니다'를 판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이면에는 '근대이성'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앉아서 거중 조정하고 있다. 그 곳에서 교육은 무의식적으로 획일화의 단일 곡선을 따라 유도된다.²⁵⁾

23) 1979년과 1982년 제임스 러브록에 의하여 발간된 두 권의 저서 「가이아: 지구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고찰(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과 『가이아시대: 살아있는 우리 지구의 전기(The ages of Gaia: A Biography of our living earth)』를 토대로 한 이론으로서 이 이론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영국의 대기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NASA 연구원으로 초빙되어 화성에서 생명체를 탐사하는 실험장치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는 하나의 행성에서 생물체를 탐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적외선망원경을 통해 화성의 공기층을 분석하여 이를 지구 대기층과 비교했다. 이 때 어떤 행성에 생물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먹이 물질과 폐기물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유체매질(바다, 공기 등)을 운반통로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때 생명체 속에서 집중적으로 엔트로피 감소가 진행된다면 그러한 과정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 운반 통로의 일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유체 매질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킬 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지구 대기내 메탄가스와 산소가 공존하는 것처럼 엔트로피의 감소를 의미하는 '대기가스의 영속적 비평형'이야말로 생물이 활동하는 하나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여기서 대기권을 생물권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전 지구를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가설을 내 놓았다.(손일, 「가이아 세계관과 환경문제」,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편,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백의, 1994, 190~191쪽, 참조.)

24) 『신약전서』, 「마태복음」: 8, 17~18쪽.

25) 서명석, 『선문답의 탈근대교육』, 아름다운세상, 1999, 30쪽.

이렇게 볼 때 불연기연의 인식 원리는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이성적 합리적 논리의 관습을 뛰어 넘어 이와 같은 이원성의 원리를 해체하고자 하는 논리 비약의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연’과 ‘기연’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계’라는 해명이 생략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실은 드러난 질서와 한 뿌리를 이루고 있는 ‘불연’이라는 숨겨진 질서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불연기연이야말로 동학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동학의 생태적 교육관을 인식의 차원에서 그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 핵심적 교육내용인 것이다. 즉 동학의 원리를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교육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내용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생태적 교육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2) 무위이화

무위이화는 『동경대전』의 「논학문」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세상이 운행되는 모든 이치를 함축하는 말이다. 따라서 불연기연의 내용과 일정부분 상통하며 동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불연기연의 숨겨진 질서와 드러난 질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이들 두 질서들 속의 생성적 상호작용의 결과 작위 없이(無爲) 저절로 화하여 이루어진다(而化)는 것이다. 즉 무위이화나 불연기연 둘 다 시천주 양천주 등의 동학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바탕적 원리를 밝히고 있는 용어인 점은 같으나 다만 무위이화는 불연기연의 결과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래 이것은 동학을 천주교의 서학과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그 변별적 우월성을 설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말인데, 동학의 교리 중 결과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행하지 않는(無爲)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진다(而化)’는 내용을 말하기 위하여 서학인 천주교를 대비하면서 비교우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천주교를 두고, “비는 것 같으나 실속이 없다”²⁶⁾든지 “십자가나 마리아상 등과 같은 형식은 있으나 그 실제적 흔적은 없고”²⁷⁾, “생각하는 것 같으나 체험적 주술이 없다”²⁸⁾는 등 서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현저하며²⁹⁾ 이런 시각은 특히 우리의 전통 유가의 풍습인 제사 부정이라든지 개인만의 구원을 비는 내실 없는 종교라는 구체적 비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³⁰⁾ 이 과정에서 무위이화에 이르는 노력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³¹⁾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 원문과 보완 번역을

26) 如呪而無實, 『東經大全』, 「論學文」.

27) 有形無迹, 『東經大全』, 「論學文」.

28) 如思無呪, 『東經大全』, 「論學文」.

29) 이처럼 동학은 서학에 비하여 실질적 내용이 있다는 것.

30) 구체적 예로 용담유사 「勸學歌」에서,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父母 죽은 후에 神도 없다 이름하고 祭祀조차 안 지내며 五倫에 벗어나서 唯願速死 무슨 일고 父母없는 魂靈魂魄 저는 어찌 唯獨있어 上天하고 무엇할꼬”라는 노래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유가적 전통을 보이고 있다.

31) 이 용어는 『동경대전』과 「해월신사법설」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동경대전』, 「수덕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吾道無爲而化矣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 西人 言無次第 書無皐白而頓無爲天主之端 只祝自爲身之謀 身無氣化之神 學無天主之教 有形無迹 如思無呪 道近虛無 學非天主 豈可謂無異者乎. 나의 도는 무위이화이라. (한울님으로부터 받은)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여 실천하면,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게 되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자연한 가운데에서 저절로 화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경전의)말에 순서가 없고 글에는 옳고 그름의 구별이 없다.(오직 예수 한 사람에게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자신 한 몸만 천당에 가겠다고 비는 것이다. 몸에는 (한울님의 감응에 의한 생성 작용의) 기화의 신이 없고(즉 서학에는 한울님과 사람을 별개로 구분하여 보고 있으므로 한울님의 기운을 회복하고 감화를 받는 상태인 기화의 신이 일어나지 않으며) (서학에는 근원적으로 한울님의 가르침에까지 이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에는 천주(한울님)의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형식은 있으나 실제의 자취는 없고 (한울님)을생각하는 것 같으나 (한울님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주문이 없으니 도는 허무에 가깝고 배움은 천주(한울님)의 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찌 가히 (서학과)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리오?: () 속의 말은 필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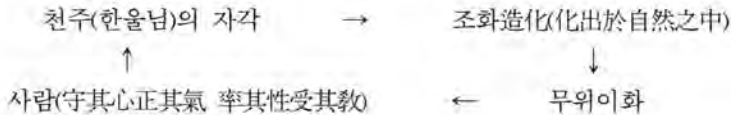
이 내용은 영적 체험이나 실제적 체험 없이 개인만이 천당에 가고자 하는 구복적 종교인 천주교에 비하여 동학은 그렇지 않고 세상 만물 모두를 천(한울) 그 자체로 보고 천이 살아 있는 생명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종교라는 것이다. 동학은 이러한 신앙적 체험을 토대로 한 종교이므로 인간 중심의 서학과는 변별되는 우월성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부분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이해 부족³²⁾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동학은 세상 모든 사물이 제각각 생명체로서의 역할에 의한 기화로써 세상이 운행되어 간다는 우주적 세계관의 원리와 이것을 깨달은 신앙적 체험에 바탕을 둔 거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전혀 새로운 종교라는 점이 무위이화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야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바꾸어 말하면 서학의 인간중심적 반생태적 가르침과는 달리 동학은 천(한울)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여(守其心正其氣) ‘한울님’을 깨달으면 이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어 결국에는 무위이화로 이루어져 간다는 생태적 원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천주교의 서학적 삼차원의 패러다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숨겨진 질서’의 세계

는 ‘닭을 修’로 쓰고 있으나 「논학문」과 오늘의 천도교에서는 ‘지킬 守’로 쓰고 있는데, 이유는 ‘한울’로부터 품부받은 마음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의미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수운의 천주교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신일철 「동학사상의 이해」, 사회비평사, 1995, 45~46쪽에서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음.

까지를 언급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위이화의 개념을 동학사상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식을 만들 수 있다.



이 도식³³⁾은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수기심정기기(守其心正其氣)’하면 ‘화출어자연지중(化出於自然之中)’하는 ‘조화造化’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무위이화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위이화의 원리에 의하여 도달된 세상이 동귀일리(同歸一理)³⁴⁾의 세상이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상이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위이화와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함축된 의미이다. 즉 동학의 관점으로 세상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천(한울)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의하여 모든 세상 일이나 만물의 운행이 인위나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 즉 천의 도인 무위에 의하여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위란 자연의 질서요 생태계의 질서라는 점이다. 자연의 질서란 작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유기화를 이루어 가는 질서이므로 곧 생태계의 질서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물론 이 말은 『동경대전』의 같은 곳 앞 부분에서 이미 “불무자연지리(不無自然之理)” 즉 ‘자연의 이법이 아님이 없다’라고 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데 동학에서 생태적 관점의 원리가 직접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아울러 「포덕문」의 “조화지적(造化之迹)³⁵⁾ 무위이화” 역시 같은 맥락의 말로서 동학의 이런 말들은 마치 『노자』 37장의 “도상무위이무불위(道常無爲而無不爲)” 즉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또한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는 구절을 연상하게 하는데 동학의 도가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게 한다. 『노자』의 이 말은, 만물을 생성, 성장, 변화시키는 자연의 힘이 곧 동학에서 한울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동학의 이러한 도가적 ‘무위’와 ‘자연’과의 관련성은 이미 앞서 말한 「논학문」의 “오도 무위이화”에서 시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위이화’는 ‘자연의 이법(自然之理)’으로써 불연기연과 함께 동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종래의 사물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천(한울)에 의한 시각으로 만물을 보도록 인식시켜 가르치고자 한 것으로 생태적 관점의 시각을 제공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무위이화는 세상의 운행원리를 함축하는 것으로 앞 항의 불연기연이 동학 교리의 원리적 가르침이듯이 그 결과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시 불연기연의 연장에 놓이는

33) 윤석산 주해, 『東經大全』, 동학사, 2004, p.73 참조

34) “來頭百事 同歸一理”, 즉 세상의 다가올 모든 일들이 천의 이법에 하나로 귀착된다”는 뜻(『東經大全』, 「歎道儒心急」)

35) 「천도교 주문 혜의」에 의하면 “造化者 無爲而化”라고 되어 있다.

같은 맥락의 용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연기연이 동학교리의 원리라면 무위이화는 이 원리에 의하여 세상 만물이 생성·변화·소멸하는 결과적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위이화는 동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목적이나 이념 구현을 위하여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동학의 교육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불연기연이나 무위이화는 동학의 교육이념과 목적 구현을 위하여 기존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과 아동존중사상에서: 실천적 교육내용

불연기연과 무위이화가 동학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기초적 교리로서의 교육내용이었다면 동학의 여성과 아동존중사상은 이러한 교리 내용을 실천을 통하여 교육시키고자하는 실천적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사상에서 여성과 아동존중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연구는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기존 논의를 통하여 생태교육적 요소를 찾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동학이 여성과 아동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한 것은 전통유교의 장유유서 부부유별 등으로 인한 잘못된 인습을 바로 잡아 이를 통하여 동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시천주의 대사를물을 교육시키고자 한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기존의 전통 유교적 관습에 의한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패러다임이 인간중심, 남성중심, 어른중심으로 철저히 고착 폐쇄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동학을 통하여 시천주하고 양천주하면 이러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혁파되어 세상을 공평무사하고 평등하게 보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깨우쳐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다. 앞서 말한 불연기연이나 무위이화는 동학에 있어 세상사물을 바라보는 사물관의 대전제이자 기초원리로서 이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세상 만물이 모두 천주(한울님)’이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 역시 함부로 해치고 학대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동학의 대 여성관과 아동관은 이 대전제의 관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를 굳이 부각시키는 이유는 기존의 전통 유교적 인식의 관습이 워낙 강하게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논리라 하겠다.

그런데 동학에서 여성과 아동을 존중하는 것은 생태주의에서 여성운동이 파생되어 맞물려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동학의 여성과 아동중시 사상도 상통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동학에서 기존 유교의 봉건적 질서가 여성과 아동의 멸시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부터의 혁파를 통하여 그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원래 생태운동에서 여성운동이 파생 촉발된 양상도 비슷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연과 환경을 확대하고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문명에 대한 반발에서 이를 혁파하는 것이 환경운동과 생태운동이었던 것처럼 여성운동 역시 여성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던 것에 대한 반발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여성운동의 출발 당시의 시각은 여성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서 생태계의 자연이나 환경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에코페미니즘의 시발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³⁶⁾

따라서 동학에서 여성 포태의 의미와 여성존중 그리고 아동존중 사상도 이러한 서구의 환경운동과 생태운동과 그 바탕 논리에 있어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동학의 여성과 아동존중 역시 앞서 말한 생태이론들 중 심층생태론의 입장을 취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동학사상의 여성과 아동존중에 대한 가르침은 ‘교육내용’으로서 그 근본이 생태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상과 같은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학사상이 여성과 아동존중의 입장을 취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나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 점은 본 항 서두에서 말하였듯이 이미 기존의 연구와 논의³⁷⁾를 통하여 주지하듯이, 요컨대 그 핵심은 역시 동학 사상의 핵심인 시천주와 양천주에서 만물을 천(한울)의 생명이 깃든 것으로 보는 만물 평등사상으로 또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즉 시천주, 양천주는 이런 모든 설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모든 생명과 사물의 천주성에 의한 만물 평등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이의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학대와 소외의 대상이었던 사물, 여성, 아동들도 인간, 남성, 어른과 함께 동등한 차원에서 중시되어야 할 존재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봉건적 사고를 불식시키려는 의도 외에 특히 여성은 실제로 생명을 포태하고 이를 낳아 기르는 존재로서의 그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즉 양천주설에서, 한울을 기르는 ‘양천’의 첫 단계를 여성의 포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포태, 생명의 잉태가 곧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의 시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포태는 곧 양천의 시작이므로 그것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여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여성의 잉태는 생명의 원초이며 이 생명을 성장시키는 첫 소임이 부인에게 있는 만큼 부인은 천지를 창조하는 근원이며 이에 부인이 수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의 수도는 동학의 현실적 교육내용 즉 구체적 실천지침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며 부인수도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 중 하나가 부인이 포태 중에 태교를 비롯하여 지켜야 할 준칙으로 제시한 ‘내칙’을 비롯하여 ‘부인수도’, ‘내수도문(內修道文)’ 등 『해월신사법설』 속의 각 장이 그것이다. 이렇듯 부인의 수도를 중요시하고 부인의 생명잉태를 중요시한 것은 곧 여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징성으로 나아가게 되어 이는 곧 생태론적 관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천도교창건사』에 전하는 해월의 ‘내수도문’을 보면 이런 점이 잘 나타난다.

36) 구승희, 앞의 책, p.108 참조

37) 대표적인 것으로 이원호, 「동학의 인간관과 현대교육적 의미」, 『조선시대교육의 연구』, 문음사, 2002.; 송준석, 『동학의 교육사상』, 학지사, 2002.; 신일철, 앞의 저서 등을 들 수 있다.

1. 집안 모든 사람들을 한울같이 恭敬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奴隸를 子息같이 사랑하라. 牛馬六畜을 虐待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怒하시나니라.
2. 朝夕飯米를 낼 때에 한울님께 心告하라. 清潔한 물을 길어 飲食을 清潔케 하라.
3.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흙인 물(천도교경전에는 ‘가신물’(한 번 쓴 물:필자주)로 표현됨)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痰이나 鼻汁을 아무데나 吐하지 말라. 萬一 길이거든 반드시 묻으라. 그러면 한울님이 감응하시나니라.
4. 一切 모든 사람을 한울로 認定하라. 손(손님:필자)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하고, 어린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치는 것이니라.
5. 孕胎가 있거든 몸을 더욱 操心하되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라. 모든 일에 胎兒를 위하여 操心하라.
6. 다른 사람을 是非하지 말라. 이는 한울을 是非하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貪하지 말라 다만 勤勉하라.³⁸⁾

이 내용은 후일 『천도교경전』에 오면 부인들에 대한 수도의 지침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보완 정리되어 있으나, 초기의 이 기록에는 반드시 부인의 수도만이 아닌 모든 동학인이 취해야 할 행동지침들이 망라되어 있다. 즉 아동존중, 여성존중, 부인의 남편존중, 하인 사랑, 가축집승 학대하지 말 것, 그 외에 심지어 사용한 물이나 가래침이나 콧물 까지도 함부로 뱉지 말고 묻어라는 등 사실상 동학의 대인 대물(접물)관이 모두 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부인들의 수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도문’임에도 이 속에 이미 동학의 대전제인 생명존귀 만물존귀의 포괄적인 생태론의 논리³⁹⁾를 바탕으로 하여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동학에 있어 여성존중·아동존중의 근본 핵심은 역시 부인의 포태이며 그 수도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비롯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에 해월은 첫 탄생한 아이의 마음을 내유신령자라 할 정도로 존귀하게 여겼으며 이를 탄생시킨 부모 역시 천지라 하였다. 해월은 그의 법설 「천지부모」에서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라고 하여 부모와 천지의 개념을 생명탄생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에 있어 시천주의 근원은 태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태어난 유아의 마음을 내유신령자(內有神靈者)라 할 정도로 동학에서 아동존중의 의미는 각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동학의 아동관 또한 유교 윤리의 본래적 의미의 장유유서가 아닌 선후고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관습적 어용유교의 폐해적 아동관⁴⁰⁾에 일대 개혁을 주장한 것이었다. 즉 종래 어른들의 어린이에 대한 왜곡된 태도에서 온 아동학대의 사고에 일대 개혁을 선언한 것이

38) 이돈화, 앞의 책, 제2편 해월신사, 40~41쪽.

39) 동학사상의 이러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평등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40) 김기전, 「長幼有序의 末弊-幼年男女의 解放을 提唱함」, 『開闢』 2, 開闢社, 1920. 7, 54쪽.

었다.

이렇게 볼 때 동학의 아동존중에 대한 가르침은 생명을 만드는 부모와 이를 포태시키는 부인과 여기서 태어난 어린이 등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평등적 인본주의의 사상에 의거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학의 아동존중 교육사상은 곧 남성중심, 문명중심, 어른중심의 사회가 이루어 놓은 봉건적 권력구조와 반생태적 권력구조의 수정을 주장하는 사회생태론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생태적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이 글은 초기 동학사상의 생태교육적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생태주의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것의 교육적 개념을 세워보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동학사상이 어떤 면에서 교육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적 요소로서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중심 논점은 동학사상의 교육내용이 어떤 면에서 생태교육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주의에는 여러 주장과 설이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 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인간중심, 문명중심의 사고와 질서를 전 우주 또는 지구 생태계의 모든 존재를 동등한 가치개념으로 확장시켜 이들 모두를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자는 논리가 들어 있다. 이러한 생태적 관점을 기본 전제로 하여 볼 때 생태교육이란, 전 지구의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의 모두가 상호작용으로 생명현상을 이루어 간다는 가치를 목적으로 하여, 이런 내용을 깨우쳐서 가르치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도 역시 이러한 생태적 관점을 전제로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동학사상의 배경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불연기연, 무위이화가 동학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세 측면 중 교육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진단하였다. 이 두 사상은 동학의 근본교리인 시천주와 양천주라는 교육목적과 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연기연이란 우주와 세상의 드러난 질서와 드러나지 않는 질서를 구분하여 바라보는 이원성의 기존 인식이 인간의 미혹이었음을 주장하는 동학사상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시천주라는 동학의 교육이념과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가르치고자하는 교육내용인 것이다. 이 불연기연의 결과 작위 없이(無爲) 스스로 변화되고 이루어진다(而化)는 무위이화 역시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의 중심논의에 해당하는 동학사상의 교육내용과 생태교육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불연기연과 무위이화는 교리적 관점의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고, 여성과 아동존중사상은 실천적 관점의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연기연은 시천주와 양천주의 이념을 구현하여 도를 이루는 원리 그 자체를 밝혀주고 있는 사상으로, 김지하의 말을 빌리자면, 보이는 현상의 ‘드러난 질서’인 ‘기연’과,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숨겨진 질서’인 ‘불연’간의 교차 증폭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이 불연기연사상의 요체이다. 따라서 이 사상은 동학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원리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천주나 시천주의 이론도 모두 이 원리 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드러난 질서와 숨겨진 질서의 상호 교차 증폭을 통하여 생성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점은 바로 우주적 지구적 모든 존재를 상호 연대하는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는 생태주의의 관점을 그대로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제임스러브록의 ‘가이아(Gaia)이론’이나 장희익의 ‘온생명론’의 기본적 관점을 그대로 보는 듯하여 자연생태론과 심층생태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적 관점으로는, 시천주·양천주를 제대로 알고 실행하려면 그 원리가 경험하고 드러난 질서만이 전부가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 숨겨진 질서가 함께 이루어져 운행되어간다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이른바 교육내용인 것이다.

동학의 교리 중 결과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무위이화 역시 ‘행하지 않는(無爲)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진다(而化)’는 내용으로서 이 말은 결국 기연과 불연의 세계가 무위적 상황에서 상호 유기적 생성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불연기연과 같은 생태적 관점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둘은 동학의 교육내용에서 교리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동학의 여성과 아동존중사상은 이러한 교리 내용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에서 여성과 아동존중을 주장한 것은 기존의 남성중심과 성인중심의 잘못된 유교적 전통윤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 하겠다. 즉 봉건적 질서 하에서 여성과 아동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던 것을 평등한 인간관계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이 점은 곧 인간이 생태계와 환경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기존의 질서인 인간중심·문명중심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태주의자들의 논리와 상통하는 것으로 여성과 아동을 생태계나 환경과 마찬가지로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학의 여성과 아동존중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라는 심층생태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남성중심, 문명중심, 어른중심의 사회가 이루어 놓은 봉건적 권력구조와 반생태적 권력구조의 수정을 주장하는 사회생태론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생태적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學思想資料集』 壹, 貳, 參,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東經大全』, 서울: 동학사, 1996

- 『龍潭遺詞』, 서울: 동학사. 1999
- 『天道敎經典』,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2(포덕142년)
- 오지영. 『東學史』, 서울: 박영사. 1974
- 윤석산. 『용담유사연구』, 서울: 민족문화사. 1987
- 송준석. 『동학의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2
-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서울: 해안. 2001
- 이원호. 「동학의 인간관과 현대교육적 의미」, 『조선시대 교육의 연구』, 서울: 문음사. 2002
- 안경식. 「동학과 아동교육」, 『한국전통아동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5
- _____.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서울: 학지사. 1999
- 최민자. 『동학사상과 신문명』,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5
- 신일철. 『동학사상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5
- 동학학회 편.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 서울: 신서원. 2001
- 조동일. 『동학의 성립과 이야기』, 서울, 홍성사. 1981
- 김지하. 『생명과 자치』, 서울: 솔. 1996
- _____. 『김지하전집』 1~3. 서울: 실천문학사. 2002
- _____. 『생명학』 1~2. 서울: 화남. 2003
- _____. 『생명과 평화의 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_____. 『밥』 (김지하이야기 모음). 서울: 분도출판사. 1984
-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_____. 『에코필로소피』 (새길신서45). 서울: 새길. 1995
- 장희익. 『삶과 온생명』, 서울: 솔. 2001
- 손 일. 「가이아 세계관과 환경문제」,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서울: 백의(경상대학교인문학연구소). 1994
- 송상용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서울: 나남출판. 1999
- 이도훈.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서울: 푸른역사. 2000
- 장남기 외. 『생태학』 (대학교재). 서울: 아카데미서적. 1997
- 이홍우. 『교육과정탐구』, 서울, 박영사. 2004
- _____. 『교육의 개념』, 서울: 문음사. 1991
- 김인희. 『교육사·교육철학강의』, 서울: 문음사. 2002
- H.J.McClosky, 『Ecological Ethics and Politics』, 황경식·김상득 옮김. 서울: 법영사. 1996
- J. Lovelock,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홍욱희 역. 서울: 변양사. 2001
- Kuhn.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조형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 E.F.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2
- Hans Jonas, 『Das Prinzip Leben, 생명의 원리』, 한정선 역. 서울: 아카넷. 2001

원고접수: 2007년 5월 14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3일

연구자 소개: 진창영

① 전공: 교육사 / 소속: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② 관심영역: 불교·노장사상과 생태교육

③ E-mail: cyjin@uu.ac.kr

Abstract

Education Contents and Ecological Education of Dong-hak Thought

Jin Chang-young

Uiduk University

There are several claims and assumptions in ecologism. They all have the basic ideas such as humanism and civilization. However, ecologism wants a change about the thought and order of humanism and civilization. It claims that the whole universe or all beings of global ecological system has the same with the values of humanism and civilization. On this ecological view, the education has the value as the purpose when all global organism and non-organism keep their lives with all interactions among them. Thus, the ecological education means to realize oneself and teach it. In addition, the teaching method also refers to only education involved ecological views.

A problem is suggested whether Bul-yeon-gi-yeon and Mu-wi-i-wha become educational contents for realizing the value and the ideology of Yang-cheon-ju. In other words, Bul-yeon-gi-yeon is the basic principle saying unreasonableness of dualism, known and unknown orders. That is the teaching contents for realization of Dong-hak. It is also possible to explain with the same logic that Mu-wi-i-wha is also resulted from Bul-yeon-gi-yeon.

As a result, the world view of Dong-hak basically takes up the ecological position. In other words, the core ideas such as Shi-cheon-ju & Yang-cheon-ju, and I-cheon-sik-cheon & Bul-yeon-gi-yeon have the logical bases of thought change from the present paradigms such as humanism, civilization and centering for male to the renovated paradigms such as equality of all things, ecological views and equality of a human being. This means that the ideology of Dong-hak has the ecological world views.

Key words : Dong-hak Thought, Ecological Education, Bul-yeon-gi-yeon(不然其然), Mu-wi-i-wha(無爲而化)